

포스트 누벨바그를 통한 프랑스 영화의 기능 이해



- 프랑스 영화탐색 강의의 핵심 -

- 기승전결 줄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살아 움직이는 영화 이미지들의 다른 이미지들과의 연관성을 보아야 하는데, 기호로서의 사진을 대하듯 그것이 의미하는 지시물을 추구하고 있다. 영화의 기본에 근거한 각자의 느낌이 중요하다.
- 하나의 장면이 지니는 독자적 이미지를 상정하는 것은 감상자의 자유이지만 <400번의 구타>에서의 대화 장면이 영화 전체의 흐름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듯, 이미지들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모든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영화는 기존 주제에 근거한 이미지들의 새로운 관계맺음이기 때문에 쇼트의 특성과 연결 기법을 보아야 한다.
- 대중과 비평가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는 상업 영화의 치유 기능을 느껴보자.

죽음의 인트로(MIX1)에서 사랑의 엔딩으로-현대 동화적 시작



원제 : <아멜리 풀랭의 우화적인 삶> MIX2

Le Destin d'Amélie Fabuleux Poulain
The Fabulous Destiny of Amélie Poulain



애들 동화 옛듣는 걸
좋아한다

불현듯 잊혀진 어린 시절이 기억에 되살아나다(<어린 왕자>의 주제)

제작비 1천만 달러(120억원), 전세계에서 1억 7000만 달러 이상 수익,
프랑스에서 4천만 달러 정도, 미국 3천만 달러, 외국어 영화 중 6위

어항 속 물고기의 자살 기도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판하여

추락 자살 관광객에 압사한 엄마



죽음의 동화적 관점

인상파 화가들의 주요 오브제 -반복되는 기차역 지하철 풍경-MIX3



누벨바그의 특징

-영화 속 극장-

-영화 속 영화-

-카메라 응시-



트뤼포 오마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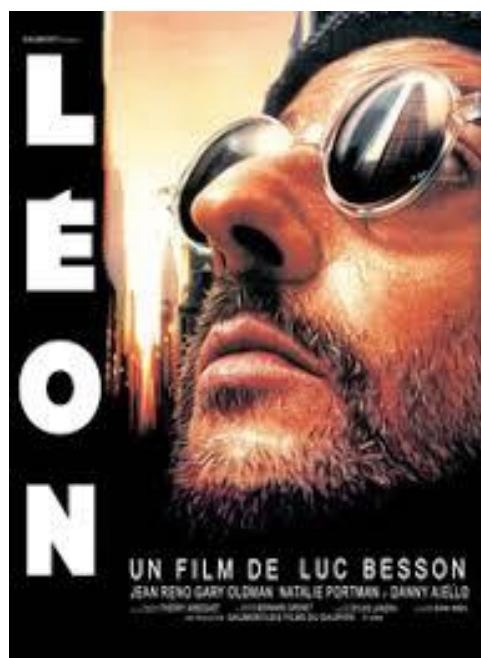


관습적 자신으로부터의 해방MIX5



stock footage, Critérium International
영화 탄생의 숨은 공로자 메이브리지 연상
"기회는 Tour de France 같은 것,
오래 기다리지만 한 순간에 지나간다"





에로티즘의 각인

육체적 오르가슴의 풍자



새로운 화면 분할

-인상주의 감독 아벨 강스의 <나폴레옹>-

기본 프레임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에
움직이는 화면 분할



인간적 공간 -포르노 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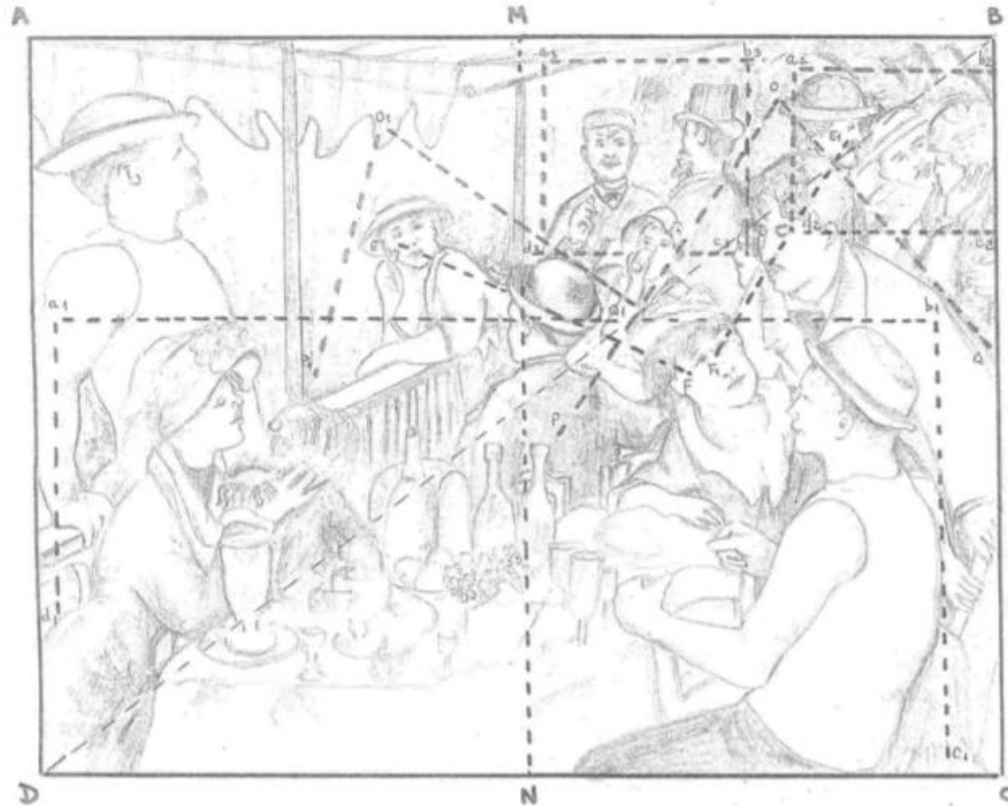
인상파 화풍에 담은 영화 주제



군중(도시) 속의 예술가, 인상파

- 부루주아 삶의 군중 속 고독
- 드라마적이지 않은 일상의 연속에서 극적인 요소를 추구
- 친밀함을 느끼는 하는,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의 표현
- 예술은 인간관계의 표현, 군중 속의 예술가는 군중과 고독이 동의어임을 표현,
- 반항이나 틈이 아닌 자유 <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영화 속 소재로서의 그림을 넘어 인상파 주제가 누벨바그 이후까지 지속



다른 유쾌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잔을 든 소녀 앙젤의 약간 멍한 시선과 표정
불투명한 아멜리의 분신 이미지

영화적 감상문의 예_오브제의 의미

...좁은 방안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 그것은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자신만의 틀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립된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다. 어릴 적 아멜리는 카메라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평범한 구름이 아닌,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토끼와 곰인형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앵글을 통해 세상의 사소한 아름다움을 보고, 이를 전달한다. 창문을 통해 이웃 화가 듀파엘을 관찰했듯이, 자발적 고립을 택한 그에게 비디오테이프를 선물하여 세상과의 통로를 만들어준다. 아내가 죽은 후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수단 또한 사진이다. 심지어는 아멜리 본인도 사진을 이용해 첫눈에 반한 니노와 소통을 이어간다. 사진과 영상이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고 기록하는 수단을 넘어 서로를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프레임을 넘어 손을 뻗는 그들의 모습은, 고립 속 연대를 말해준다.

영화에는 유독 인물들의 클로즈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인물이 관객을 바라보듯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거나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소통하기도 한다...

영화적 감상문의 예_클로즈업

또 한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인물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매우 자주 등장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화면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인물을 클로즈업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반신 혹은 얼굴을 카메라 정면으로 놓고 클로즈업해서 그 인물의 성격이나 생각 등을 표정이나 생김새 등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영화에서 많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해당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방식보다 한 씬 한 씬 그 정보를 통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 상_인상파 연상

우선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던 점은 영화 속에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상파 그림을 무척 좋아해서 모네, 르누아르 등은 그 그림의 느낌과 색이 예뻐 좋아했지 인상파 그림의 신념들과 구체적인 것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사용했던 기법과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고자 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인상파의 영향을 무척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시작도 해가 뜨는 도시의 장면이었고, 영화 중간중간 기차들의 등장과 주인공들이 연결되는 매개체가 되는 기차역의 사진부스,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과 대비되는 도시의 생활과 장난감병정이 하는 세계일주 등등 영화의 바탕에 인상파의 영향이 많이 스며들어 나타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영화 중간중간 르누아르의 그림들도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감 상_인상파와 카메라

저는 이 영화가 인간의 삶이 모두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의 순간순간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고 느꼈습니다. 주인공인 아멜리는 항상 작전을 짜고 혼자 움직이며 사람들을 도와주고 혹은 복수를 하고, 심지어는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까지 숨어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화가였던 듀파엘이 아멜리에게 용기를 주고 금방 지나가버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며 아멜리는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에서 바로 지나가버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림으로 잡아두고자 했던 인상파 화가들의 신념이 녹아들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연결이 되는 매개체 또한 인상깊었습니다. 바로 기차역의 사진부스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잡아두고자 했던 인상파의 신념이 바로 카메라로 수렴되는...

(우연이 필연을 만들어감)

질문

지난 시간, 인상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각 인물들의 표정이나 감정, 혹은 한 인물이 무언가를 하는 동안 다른 인물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영화가 인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까요?

간략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아멜리가 남들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깨달은 바를 자신에게까지 적용하는 데는 아마튜어 인상파 모사화가 뒤파엘의 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요. 인상파와 누벨바그 모두 소외된 개인들 즉 아무 것도 아닌 존재들을 중시하고 나와 나와 남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전거 경주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뒤파엘의 충고가 바로 인상파의 순간 포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사이지요. 이런 대사가 줄거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미약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풀어나가는 영화적 기법이 이전 영화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질문

1) 영화 '아멜리에'를 보면서 기존 누벨바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누벨바그와 다른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느 사조에 속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다음 질문에 답변에서 함께 다루고자 함).

2) 영화 중간에 아멜리가 자신에 대한 내용을 TV로 시청하는데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 보다는 느낌, 말 달리는 신에 관한 설명 참조) 영화는 새로운 방식의 느끼기

간략한 답변

자신의 관성을 벗어나 자유도 얻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도를 표현하는 기법도 다양한데 여기서는 영화 속 다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는 영화의 새로움을 영화적 관점 즉 카메라 앵글과 편집 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기법 사조에 관한 질문은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인만큼 강의 시간에 나누도록하지요.

질문

- 듀파엘은 아멜리가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조언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듀파엘 자신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그림만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 배역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듀파엘에 대한 소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독은 이 듀파엘이라는 인물이 그저 아멜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만을 위해 등장시킨 것인지 혹은 듀파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또 다른 것을 전달하고자 한 것인지 헛갈리고 궁금했습니다.

- 영화를 보는 내내 인상파적인 배경과 소재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좋았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면서 카메라 기법을 캐치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인상파와 영화의 연관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간략한 답변

인상파와 프랑스 영화의 공통 분모 즉 순간 포착의 글쓰기에 관한 자신만의 관찰이 담겨 있습니다. 즉 화가 듀파엘이 아멜리에에게 하는 조언과 아멜리의 용기는 순간적이고 사라져가는 덧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듀파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나와 남의 존재가 아니라 그 관계('와')라는 사실입니다. 영화가 이미지들의 관계맺음이듯, 듀파엘의 역할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멜리의 고독과 루파엘의 깨달음이 서로 길들임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화는 누벨바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강의 시간에 이와 관련한 기법과 사조에 관해 함께 나누지요.

질문

누벨 이마주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영화를 일컫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기존의 누벨바그와 관련이 있다
면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고, 누벨바그와는
다른 누벨 이마주 만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
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아멜리>와 누벨바그, 인상파 관련한 훌륭한 감상문을 읽었습니다. "아기자기하지만 로맨스" 영화에서 "카메라, 해설자와 함께 아멜리에와 그녀의 일상을 함께 들여다 보는 영화"로 바뀐 것만으로도 전환된 영와 감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영화 용어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물음을 던졌죠.

첫 주 강의와 최근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소위)누벨 이마쥬는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기에 '소위'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그 외에도 예술영화, 순수영화, 종합예술로서의 영화, 빛의 예술로서의 영화 등등 우리만이 쓰는 영화 용어가 많지만 특히 누벨이마쥬는 누벨바그 이후 개성이 강한 작가들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에서만 쓰입니다.(외국에서는 '시네마 뒤 룩' 정도로 불리죠. (숙련된 영화 테크닉, 영화 속 영화, 스펙터클 앵글, 도시의 소외된 젊은 연인 등의 공통점)

누벨바그 이후는 그냥 포스트누벨바그이며 대부분의 작가의식을 지닌 영화 감독들은 누벨바그처럼 자신의 영화가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작품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만의 철학과 문학과 음악과 미술을 영화에 담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가 저마다의 작품을 작가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면 됩니다. 자신의 느낌만으로 훌륭한 감상문이 됩니다.

인상파 회화 작품들을 총체적 인상파 프레임에 의거하여 감상할 수 없는 법이듯. 누벨바그 감독 세대와 이후 이삼 십년이 지난 세대들의 감독은 전혀 다른 공간에서 더욱 발전된 기술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영화만의 특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답 변

<에일리언4>까지 이전 작품을 함께한 동료 마크 카로와 거리를 두면서 장 피에르 쥬네는 자신의 특기인 애니메이션 기법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담아 <아멜리>를 만들었지요. 기본 취지는 누벨바그를 따르면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술 작품 감상이 그러하듯 개론서(eg.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영문학개론)에 나오는 사조별 특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낭만주의도 이성을 존중하고 고전주의도 감성을 존중하지만 강단 문학사는 대개 낭만주의는 감성을, 고전주의는 이성을 강조하는 사조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빅토르 위고로 대표되는 낭만주의 역시 고전주의작가들이 야유조로 부른 별칭인데 품위 유지의 문학을 위한 문학에 대항하는 점에서만 같을 뿐 작가들의 사상과 취향은 모두 다릅니다. 사실주의도 상징주의도 대부분 타락한 기성 세대와의 싸움을 근간으로 할뿐 개별 공통점은 찾기 힘듭니다. 사람 자체가 그러합니다.

누벨바그 조차도 누벨바그 감독들 자신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고 설명했지요. 자신들은 그저 공동의 적으로서 품위를 지향하는 감독들에 맞서 싸웠을 뿐 서로 개성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트뤼포와 고다르는 점차 카뮈와 사르트르처럼 서로를 비난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장 자끄 베넥스, 레오 까락스 그리고 뤽 베송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누벨 이마주'의 끝물, '후기인상파'로 불리는 장피에르 쥬네의 작품들마저도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벨바그 이야기는 그냥 프랑스 영화의 영화적 전통을 복원하려는 청년들의 영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간략한 답변

(니노 마주한 아멜리 녹아 사라짐)

- 이런 독특한 연출들은 아멜리에의 정신세계, 상상 속 장면들을 묘사하는 장면들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 아멜리에가 녹아내려 액체가 되는 장면에서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2시간이라는 시간의 영화 안에서 수도 없이 나오면서도 몰입도가 깨지지 않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제 입장에서 너무 신선한 연출이라고 느껴지면서도 이 질감은 많이 느끼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신기했습니다.

- 아멜리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기법은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 앞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무아의 경지 즉 에로티즘의 기본을 보여주는데, 실사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을 없애면서 니노와 하나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물수제비용 돌멩이를 줍은 장면은 아직 자신 속에 갇힌 상황을 보여주죠.

질문

화가 듀파엘이 모작하던 그림 르누아르의 은 다
양한 인물들의 시선이 엇갈려 있습니다. 듀파엘
은 그중 한 여인의 표정을 잡기 힘들다고 말하
고, 아멜리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여인의 지닌
표정의 의미를 다르게 추측하며 그 여인에게 자
신을 이입한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
면에서 아멜리는 니노와 함께 하며 환하게 웃는
데, 이는 그림 속 여인도 마침내 표정을 찾고
듀파엘이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영화 속에서 그림의 역할과 지니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간략한 답변(<질과 짐> 비교)

두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의 취향이지요. 사실 트뤼포가 가장 숭배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지난 강의의 설명했는데 사실 원작이 좀 난해합니다. 그에 비해 아멜리는 <동화같은 아멜리의 삶>이라고 제목에 이미 명시해두었죠.

이에 따라 쇼트와 편집이 달라진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은 필수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영화 감상의 관점은 카메라의 위치를 생각하며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앵글과 편집, 줄거리의 부속물이 아닌 대사 저마다의 독립적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상 깊었던 영화를 두 번 이상 보게 됩니다.

1.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작품들이면 감상문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2. 모두가 순간이지만 예술에서의 순간이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떠올려주는 공동의 인상의 순간입니다. 인상파 회화는 일상의 우연을 포착하지만, 상업 영화는 우연을 만들어내지요.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작품 속에서는 우연이 필연을 만들어 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할 수는 없어도 대개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이미 정해진 필연의 부속물로서의 우연이 짜여지는 경우가 많지요.

3. 인상파 회화의 소재와 시간과 빛 등 영화 속 장면이 그러합니다. 강의 시간에 설명하지요. 영화 속 르누아르 작품이 대표적이죠.

질문과 답

Q- 아멜리에가 길을 걷다 돌을 줍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멜리의 어린 시절, 친구 없이 외롭게 지냈을 때 하던 습관을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다기에 내 생각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멜리가 돌을 줍는 장면을 정성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영화에서, 아멜리가 모든 장소에서 돌을 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물수제비를 좋아하는 아멜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인가요? 아니라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영화 전체 구도 속에서 아직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속에 갇힌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질문과 답

Q 1. 영화가 마치 연극처럼 해설하는 목소리와 진행되는데 이런 표현방식이 주는 효과나, 감독의 의도가 있을까요? 지난학기 프랑스공연예술탐구 수업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배울 당시 각색한 영화들이 희극의 형태인 원작의 느낌을 반영하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였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아멜리와 같이 원작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영화들을 많이 본 것 같아 궁금증이 생깁니다.

2. 등장인물들이나 해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만큼 정확한 날짜나 시간들을 기억하고 말하는데, 마치 긴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를 제가 느낀 것처럼 문학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3. 금붕어를 찾는 아멜리의 부모님 같이, 바닥에 쪼그려 엎드리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에 작가의 의도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A 1, 2 번에 물음에 대한 답은

동화의 분위기를 현대식으로 재현하는 장치들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옛날 옛적에...를 떠올리지요.

3번은 아직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밖을 향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영화의 결말과 대비되는 장면들이지요.

전체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고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질문과 답

Q. 영화에 자주 망원경, 카메라 등을 통해서 훑쳐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는 도시를 훑쳐보는 것이 곧 영화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네마에 대한 감독의 헌사인가요?

A. 영화는 카메라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문학이 아닙니다. 카메라의 눈은 항상 호기심과 반김의 눈이죠. 물론 이데올로기 영화는 감시의 눈이기도 합니다.

질문과 답

Q. 아멜리에'의 화면은 노란 조명 아래에서 붉은색과 초록색이 주를 이룹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멜리의 뒤로 초록빛 병이 세워져 있습니다. 붉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가 열쇠로 초록색 문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열쇠, 위험, 걸림, 초록색은 안전, 질투, 자연을 의미하는 걸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붉은색과 초록색의 주된 사용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요?

A. 색 자체의 독자적 의미는 없으니, 두 색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지요.

질문과 답

Q. 영화 도중에 별 것 아닌 장면에도 (물론 모든 장면들에 각각 담긴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 사소한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효과음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배경음악이 사라지거나 매우 작아지면서 효과음 소리만 매우 크게 나서 마치 그 소리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튀는 장면이라던가 구슬이 굴러가는 장면 등 대사가 없는 장면임에도 배경음악 대신에 효과음이 사운드의 주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이 제작자의 의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사운드가 이미지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영화는 말이기도 해서 잘 들어어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감상한 이냐리투의 <Anne>의 경우 맹인이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좋은 예이지요. 사운드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좀 과하다 싶네요. 상업 영화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한계를 지키고 있어 브레송의 사운드 정의에는 이르지 못하나 영화의 효과음과 영화 사운드 본질과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지요.